SLOW
슬로우성형외과의원
주소 : 제주시 노형8길3 우학빌딩 5~7층 문의 : 064-900-2600 심의필 : 제 180227-증-03863호

SINCE 1989 창간 31 주년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9112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5월 12일 화요일(음력 4월 20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창일 의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왼쪽).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4·3유족청년회(오른쪽). 강희만기자

4·3특별법 개정안 폐기·의결 '기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오늘 개정안 심의
제주 국회의원과 4·3 관련단체 처리 촉구 회견

20대 국회에서 제주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의 '폐기 또는 의결'의 운명을 결정짓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돼 제주4·3 희생자 유가족과 도민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담당하는 법안소위는 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이자 동시에 가장 핵심 단계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송재호 당선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이번 회기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행안위 소속 강창일 의원은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소위로 사·보임해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20대 국회들어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간 합의 미진과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72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전격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법안 처리의 한 축인 미래통합당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번 안건 상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제주 4·3 유족들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달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19일 발의됐지만 2년 5개월이 되도록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부미현·이상민기자

초중고 등교개학 또 1주일 연기

고3 기존 13일→20일… 중1은 6월 1일→8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재확산 되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수업이 1주일씩 추가 연기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년별 등교 수업 시작일을 일주일씩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앞서 이날 오후 3시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등교 연기를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일로 예정됐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등교 수업일은 20일로 연기됐다. 고2·중3·초1~2·유치원생 등교는 27일로 연기됐고, 고1·중2·초3~4학년 등교는 6월 3일로 미뤄졌다.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마지막으로 등교한다.

교육부는 지난 4일 학년별 등교수업 일정을 발표하면서 감염증 상황을 예의주시해 조금이라도 등교 수업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판단·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7일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 확진을 시작으로 제주 1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등교 수업 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등교 추가 연기 여부를 이달 20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유흥업소를 방문했거나 동선이 겹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고했다.

교육부는 "교직원은 일과시간 중 많은 학생과 지속 생활한다"며 "만일 방역 업무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초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이태원 클럽 방문자 제주 40명 확인

도, 코로나19 제주14번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해 도내에서 파악된 이태원 지역 방문자는 11일 기준 40명(확진자 포함)이며, 이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24명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5명은 검사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관련돼 질병관리본부 측으로 공식 통보된 3명을 포함해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이력으로 제주도 보건당국에 자가 신고하면서 검체 채취가 이뤄졌다.

도는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최근 이태원 클럽 관련 사례가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고려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1대1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도내 14번째 확진자 A(30대 여성)씨가 방문한 곳을 대상으로 임시 폐쇄와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A씨 방문지 2개소(더고운의원, Y식자재마트)를 임시 폐쇄하고 방역·소독했으며, A씨의 자택과 A씨가 이용한 지인 B씨 소유 차량 1대, 버스 4대도 소독을 완료했다.

A씨는 현재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일 일시적 발열, 구토증세를 보였으나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도는 A씨와 접촉한 140명을 자가격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의 접촉대상자를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선제적 대응 일환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본격 추진

사업 대상지 5곳 선정 계획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업체에 대한 사업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도내 사업대상 및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7개 지역에서 신청이 이뤄졌다.

제주시에서는 오라동, 노형동, 한림읍(귀덕·상대·수원·대림), 조천읍(함덕·선흘·와흘·대흘) 4개 지역이, 서귀포시에서는 예래동, 대정읍(상모·하모·대정고을), 남원읍(의귀·신흥·태흥·수망) 3개 지역이 신청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 규모는 약 90억원이다.

도는 12일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마을단위로 주택, 건물 등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기준 국비 50%와 도비 30% 이내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는 주택·건물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태윤기자